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2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제28호)

e - 날씨가
썩썩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2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제28호)

목차



기상청장 기고

- 05 / 꿀벌 실종, 기후 위기 시대의 생물들
- 07 / 소리 없는 공포, 안개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09 / 6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1 / 7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0 / 8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3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35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36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2년 8월 31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영연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이은영(기획운영과), 홍연주(기획운영과), 박창용(예보과), 이혜정(관측과), 정영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지정단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 호(예보과), 김효원(예보과), 남민우(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창용(예보과), 서유미(기후서비스과), 안태건(관측과), 윤영란(예보과), 이정섭(관측과)

장민준(예보과), 조현겸(관측과), 홍연주(기획운영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 저각용'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꿀벌 실종, 기후 위기 시대의 생물들

꿀벌들의 대규모 실종사태,
벌집군집붕괴현상이라고
한다

“모란꽃 피는 유월이 오면 또 한 송이의 꽃 나의 모란”

6월에 들어설 때면 학창 시절 음악 시간에 배웠던 가곡 한 소절이 떠오른다. 당시에는 단지 모란꽃이 6월에 피나 보다 하고 별다른 감흥이 없었지만, 이후에 생각해보니 5월에서 6월 우리나라는 모란뿐 아니라 장미, 작약, 수국, 나리 등 온갖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며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올해도 공원에 아름답게 핀 모란과 장미들 사이로 날아드는 꿀벌과 나비들을 보며 문득 얼마 전 화두로 떠올랐던 꿀벌 실종 사건이 떠올랐다. 올해 1분기에 전국 양봉 농가의 약 227만여 개 벌통 가운데 17.2%인 39만여 개 벌통에서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약 78억 마리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이처럼 꿀벌들의 대규모 실종사태를 CCD(Colony Collapse Disorder) ‘벌집군집붕괴현상’이라고 한다.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40%의 꿀벌들이 사라져 우려를 낳고 있다.

꿀벌 실종사건의 범인 중 하나로 거론된 것은 다름 아닌 기후변화이다.

전문가들은 온도 상승으로 인해 꿀벌에 기생하는 해충인 ‘꿀벌응애’ 증가와 이에 따른 과도한 살충제 사용, 온난화로 인한 꽃들의 개화 시기 교란에 따른 먹이 부족 등을 이번 꿀벌 실종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였다. 혹은 변온동물로서 온도 변화에 민감한 꿀벌이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가을철에 비정상적인 산란으로 겨울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아직 꿀벌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꿀벌 실종 사건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꿀벌이 인간 주변에서 이로움을 주는 곤충이기에 꿀벌 실종이 좀 더 큰 사건으로 다가왔을 뿐 이미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생물들의 실종 신호를 접해왔다. 예를 들면 구상나무의 멸종 위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데, 올해 초 한라산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개체수는 2017년에 비해 1만 그루 이상 고사하여 줄어들었다. 구상나무는 겨울에 내린 눈으로 봄철까지 수분을 공급받는데, 2000년대 이후 겨울철 적설량이 줄어들고 눈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며 생긴 수분 부족은 구상나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신호는 바다에도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산호 백화현상'이다. 백화현상이란 산호에 색깔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조류가 빠져나가면서 하얗게 빼만 남는 현상으로, 산호초가 사는 곳의 온도가 평소보다 0.5~1.5°C가 높아진 상태로 몇 주간 지속되면 발생한다.

호주 북동 해안에 위치한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면적은 1995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혹자는 기후는 원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대 인류의 윤택한 생활에 있어 생태계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전제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의 80%가 동식물을 원료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식량, 의류 등 우리 생활 곳곳의 필수품들이 다양한 생물에서 유래한 것들이다. 세계 100대 작물 중 71가지가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 중 63%가 꿀벌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 앞서 언급한 산호초에는 전 세계 해양 생물의 1/4이 서식하고 있고, 물고기만 해도 4천 종 이상이 산호초에 신민하며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채우고 있다. 1970년에서 2006년까지 31%의 생물종이 멸종했으며, 이것이 자연적인 속도보다 약 1000배 이상 빠른 것이라는 현실은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식량 중 63%가 꿀벌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

함께 지내던 이웃,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난 환경에서 인간이 홀로 풍요롭게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다. 신록 속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100년 후에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다져 본다.



기상청장 기고문 #2 소리 없는 공포, 안개

안개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지표 가까이
에 뜬 현상

지난 2015년 2월 11일 오전 9시 40분경, 인천 영종대교에서 가시거리가 10m에 불과한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10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4개월 후 치료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고로 인한 최종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12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차량파손 등으로 13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사고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쇄 추돌 사고로 기록되었다. 그 밖에도 안개로 인하여 항공기나 여객선의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개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상 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안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률은 9.5%로, 비(2.37%)나 눈(2.39%)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4배나 높았다. 또한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해상 사고 3,882건 중 기상현상에 의한 사고는 315건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안개로 인한 사고는 49건으로 기상현상에 의한 사고 중 15%를 차지했다.

이처럼 안개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기상현상이다.

안개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지표 가까이에 뜬 현상이며, WMO(세계기상기구)에서는 안개를 수상(물, 얼음, 수증기)에 의해 수평시정이 1km 미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안개의 종류는 발생 원인에 따라 지표의 냉각으로 형성되는 ‘복사안개(radiation fog)’와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차가운 지표 또는 수면 위로 이동할 때 포화되어 발생하는 ‘이류안개(advection fog)’, 습윤한 공기가 높은 지형을 따라 상승하여 응결하는 ‘활승안개(upslope fog)’, 온난전선면 부근에서 약한 비가 내릴 때 발생하는 ‘전선안개(frontal fog)’,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수면 위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김 안개(steam fog)’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위치하여 서해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며, 봄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습하고 안정된 공기가 해안가로 이동하면서 안개 발생이 잦아진다.

기상청은 사회·경제 발전과 교통량 및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개 ‘안개상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과 50m 차이를 두고도 크게 달라지는 안개의 국지적 특성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개특보 대신, 상세 정보와 속보를 통해 안개 정보의 정확성과 유용성, 실효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바다 안개를 감시하고 피해 경감 및 안전한 해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여객선 항로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의 등표와 등대에 해양안개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안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전남권 25대, 2020년 인천·경기권 25대, 2021년 충청·전북권 25대를 설치하였고 2022년에는 부산·경남·경북·강원·제주권에 25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권역별로 매년 약 25대씩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상세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객 및 조업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안개관측장비에는 시정계뿐 아니라 안개관측을 보조하는 영상촬영장비(CCTV)를 설치하여, 가시거리 측정값과 함께 현재의 안개 상황을 촬영해 '해양기상정보포털'에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 날씨누리'에서는 GIS기반의 위성 안개 분석 및 시정예측자료를 제공 중이다.

또한 국립기상과학원 수도권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은 협업하여 안개 다발 지역인 서해안에 기상관측차량, 기상드론 같은 현장 이동이 용이한 기상관측장비를 이용한 안개기술관측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기상청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개상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점차 대형화되는 안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안개관측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청은 365일 양질의 관측자료를 제공하고 맞춤형 기상정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전달하여, 소리 없는 공포인 안개로부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9-20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6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6. 2.

‘호국보훈의 달’ 맞이 현충원 묘역정비 봉사활동

대전지방기상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와 연계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묘역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현충원 묘역정비 행사는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에서 매년 6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지역 각계각층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묘비를 닦고, 묘소 앞 태극기를 꽂는 행사이다.

더운 날씨로 힘든 봉사활동이었지만 직원 간 협동심을 기르고, 순국선열들에 대한 숭고한 뜻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022. 6. 3., 7. 11.

지역미래인적자원 대상 기상관측차량 홍보

대전지방기상청은 소담중학교(6.3.)와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7.11.)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상관측차량을 홍보하였다.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목적과 기능, 고층기상관측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고층기상관측 수행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홍보를 통해 지역 미래 인적자원들의 기상과학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국민공감형 소통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6. 7 ~ 6. 8.

대전(청) 관측기관 소통·공감 워크숍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대전(청) 관측과와 홍성기상대 직원 13명이 참여하여, 당진 지역의 신평 AWS 이전 추진과 아산만 권역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관측망 확충 및 재조정 등 관측업무 현안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6. 9. ~ 6. 28.

술선수범 시니어보드 「함께하3! 하지마3!」 캠페인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관리자급의 술선수범을 통해 청 내 건강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확산 하고자 ‘술선수범 시니어보드 함께하3! 하지마3! 캠페인’을 운영하였다.

‘지켜야 할 조직문화, 없애야 할 조직문화’를 주제로 전 직원 대상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6.9.~17.)하고, 공모 당선작(3건)을 대상으로 관리자급의 이행 서약 및 다짐(6.28.), 전 직원이 실천하는 캠페인을 운영 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인식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022. 6. 10.

2022년 수산거버넌스 협의체 참석

대전지방기상청은 천수만 해역의 양식어장 고수온 피해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충청남도청이 주관하고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천수만 지역 수산거버넌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기상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천수만에 설치한 ‘홍성죽도 AWS’와 ‘천수만 파고부이’ 에서 관측한 과거 여름철 기상변화와 함께 충남지역의 2021년 여름철 기상특성 및 2022년 6~8월 기상전망을 설명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2022. 6. 14. ~ 6. 15., 6. 21. ~ 6. 22.

2022년 상반기 소통·교류 문화체험

대전지방기상청은 직원 및 부서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2022년 상반기 소통·교류 문화체험을 운영하였다. 청 내 2개 부서 이상의 구성원으로 팀을 선발하여 기상·기후 과학현장, 자연생태 답사 등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재충전·힐링의 장이 마련되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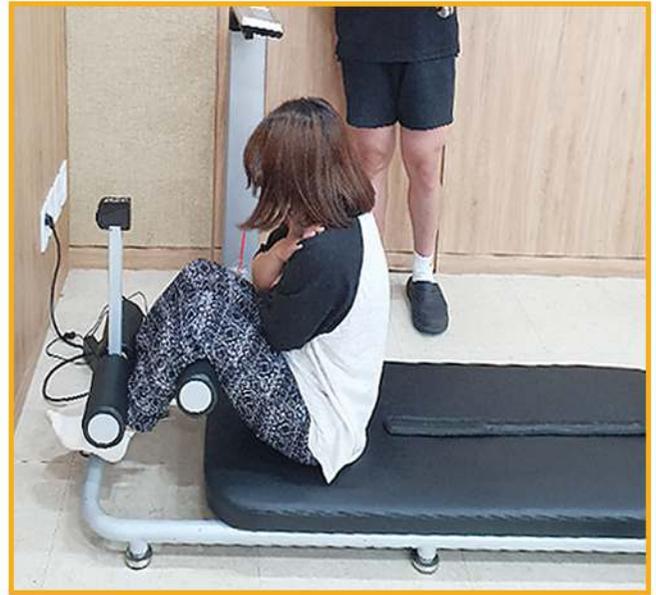


2022. 6. 15.

2022년도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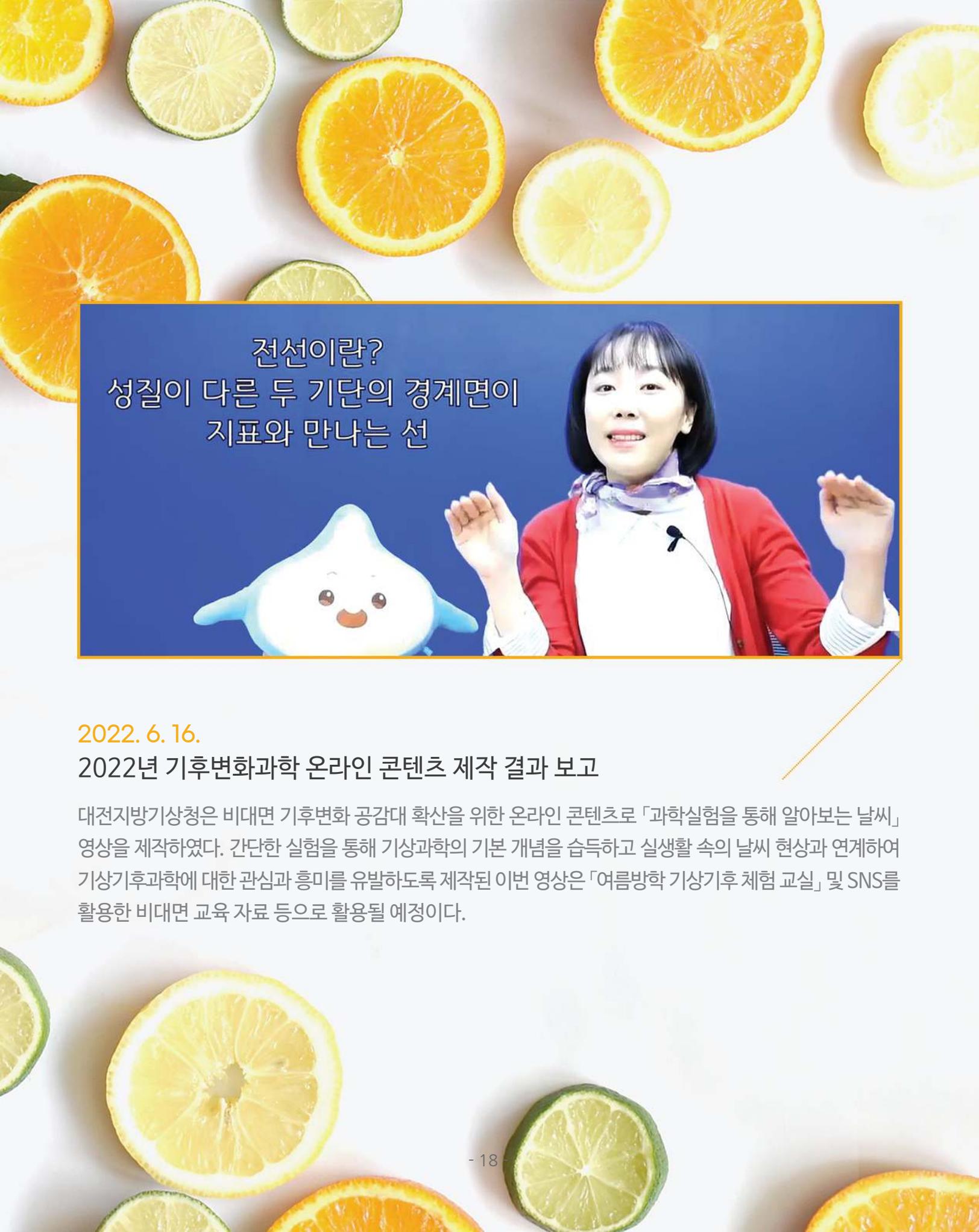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방재기관 담당자의 기상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방재기상 정보시스템 활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금강홍수통제소를 비롯한 12개 기관 18명이 참석하였으며,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육상·해상 기상실황 파악, 위험기상 관측 및 예측자료 활용, 폭염 영향예보 소개와 대응 요령 안내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방재담당자들이 원활하게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 6. 16.

2022년 제1회 기상가족 건강지킴이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직원 건강관리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1회 ‘기상가족 건강지킴이’를 운영하였다. 직원 16명이 참여하여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근력, 유연성, 심폐 지구력 등 체력측정을 하였으며, 체력등급이 우수한 1~3등급의 직원에게는 체력인증서와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10월에는 제2회 기상가족 건강지킴이를 운영할 예정이며, 1차와 2차 결과를 비교하여 체력이 가장 많이 향상된 직원 1인을 선발·포상할 계획이다.



전선이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
지표와 만나는 선



2022. 6. 16.

2022년 기후변화과학 온라인 콘텐츠 제작 결과 보고

대전지방기상청은 비대면 기후변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로 「과학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날씨」 영상을 제작하였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기상과학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실생활 속의 날씨 현상과 연계하여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도록 제작된 이번 영상은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 교실」 및 SNS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2. 6. ~ 10.

브런치 기후카페 8기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 이해확산 대표 프로그램인 브런치 기후카페 8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2022년 브런치 기후카페는 작년 7기 활동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사항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생활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브런치 기후카페 8기 활동에 대전·세종·충남지역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2명이 참여하였으며, 매월 주어지는 미션 활동과 참가자들의 SNS 소통은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촉매가 될 것이다.



2022. 6. 24.

신평 자동기상관측소 이전 설치



대전지방기상청은 아산만을 통과하여 유입되는 위험기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신평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이전 설치하였다. 이전 설치된 곳은 삽교호 호수공원으로, 아산만 효과로 인한 국지성 대설 발달의 초입 지대에 위치하여 겨울철 위험기상의 선제적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주변 장애물이 없어 관측시설등급이 향상되고, 삽교호 주변의 관측공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7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7. ~ 8.

폭염 취약계층 대상 기후위기 · 탄소중립 캠페인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폭염 기상정보 홍보물(부채) 및 폭염 영향 정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운영하였다. 대전교통공사와 협업하여 '폭염대비 노약자 쉼터'에 물품을 비치하고, '중앙 시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무더위 용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청 내 부서 협업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여름철 기후위기 ·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폭염 피해 예방에 기여하였다.



2022. 7. 4.

충남북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답사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6월 29일~30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북부지역의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1시간 최대강수량 105.4mm를 기록한 서산지역에서 저수지 제방유실, 주택침수, 교량붕괴 등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피해지역의 지형 특성과 인근 기상관측지점 환경 조사, 기상재해 취약요소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비해 적재적소에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 7. 5., 7. 20.

폭염특별관측 사전 답사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지기상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폭염특별관측을 수행한다. 이번 관측은 대전지방기상청이 주관하고 관세청(대전연수원), 충남농업기술원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기상관측차량, 기상드론, 휴대용 온도계를 활용하여 폭염 시기온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5일과 20일에 사전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폭염 취약 현장의 기온 특성 분석을 통해 폭염 맞춤형 기상정보 생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 7. 6. ~ 7. 8.

2022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 기상관측차량 지원



대전지방기상청은 '2022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에 기상관측차량을 지원하였다. 기상관측차량은 대구 엑스코 실내전시장에 전시되어, 실시간으로 기상관측을 시연하며 많은 시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도 대전지방기상청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기상정보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상청 업무 홍보를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2022. 7. 7., 7. 26.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야외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현장설명회 및 3차년도 중간보고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야외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사업의 현장설명회를 7월 7일 개최하고, 내부 전시물 3차년도 사업의 공정 현황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7월 26일 개최하였다. 현장설명회에서는 기상관측을 주제로 한 전시 사업의 이해 제고 및 입찰참가 도모를 위해 사업소개, 현장견학 등을 진행하였으며, 중간보고회에서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 및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7. 11. ~ 8. 5.

미래 기상인 양성을 위한 ‘공주대학교 현장실습 교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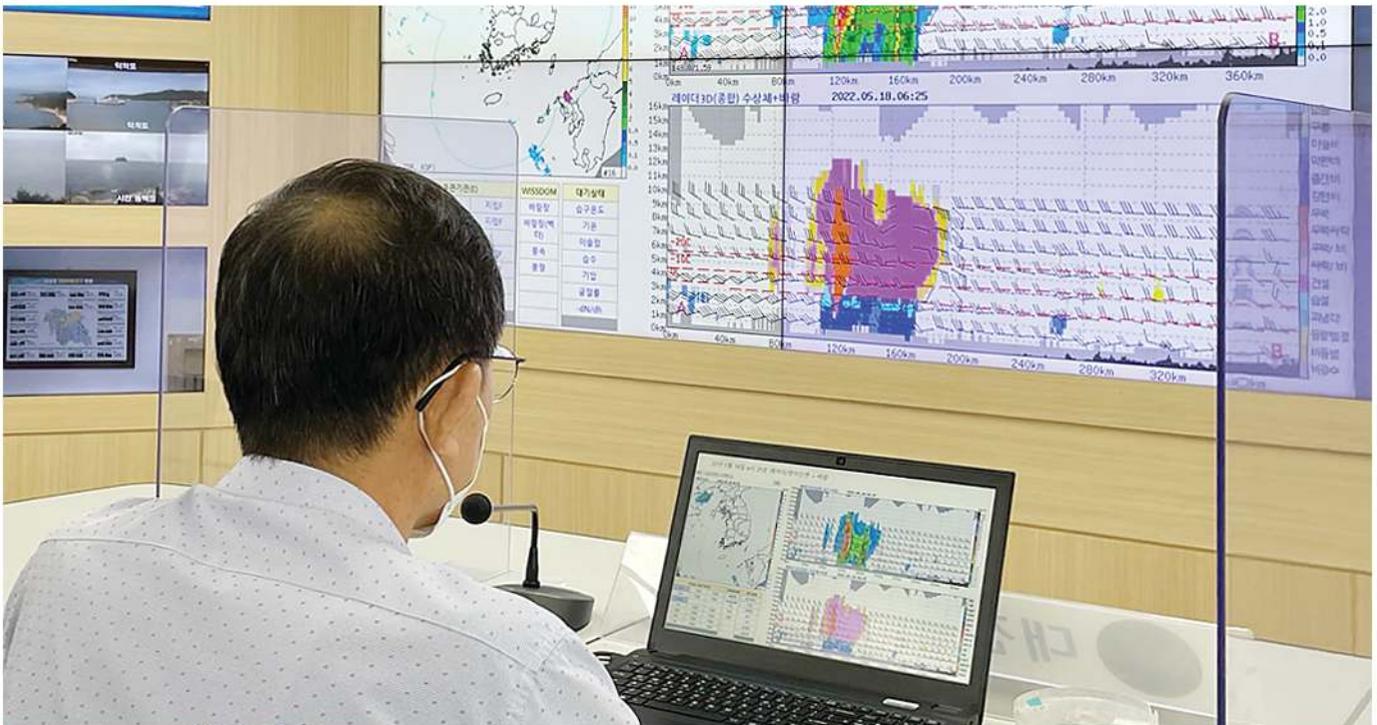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4주간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4학년 4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첫 주는 일기도 분석, 예보분석서 작성법 등 이론 강의를 실시하였고, 이후 3주간 현업 교대근무에 투입되어 일기예보 생산과정에 참여하였다. 대기과학 전공 대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상 이론을 실무에 적용시키는 실질적인 업무 체험 기회를 가졌다.

공주대학교 현장실습교육은 올해로 14번째로, 대전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지역 내 기상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 7. 14.

여름철 위험기상 선형학습 세미나



대전지방기상청은 계절별 위험기상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예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 선형학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여름철 기류 수렴에 의한 소나기 구역을 분석하고, 강수 예코의 발생과 이동경로, 소멸을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언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컸던 지난 2020년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분석해보며 여름철 방재 위험기상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2. 7. 18. ~ 8. 12.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 교실



대전지방기상청은 2022년 주니어닥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비대면 프로그램 '네가 나에게 오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었고, 대면 프로그램인 '1.5°C의 비밀과 티핑포인트'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탄소중립의 개념 이해 및 폭염 영향 예보에 관한 특강과 수상가옥 만들기 활동 등에 참여한 학생들의 89%가 재참여를 원할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2022. 7. 22.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지원을 위한 우수강사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수강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 박영연 대전지방기상청장을 비롯한 담당 주무관 등 내부 직원 9명과 기후변화과학 강사 육성과정 우수강사 5명이 참여하였으며,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교육지원 현황과 우리 지역의 기후 특성 및 미래 전망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 논의,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지역 우수 강사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기상·기후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8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8. 3. ~ 8. 8.

‘폭염 영향예보 음성서비스’
송출 현장 방문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방자치단체(대전, 세종, 논산 등 13개 시·군)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의 음성송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폭염 영향예보 음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영향예보의 효과적인 전달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폭염 음성서비스 송출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영향예보의 홍보와 더불어 폭염에 대처하는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폭염 피해를 당부하였다.

2022. 8. 3. ~ 8. 4., 8. 24. ~ 8. 26.

폭염 영향예보 기온 특성 분석 연구 기상관측차량 및 기상드론 지원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폭염 피해 및 국민의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전지방기상청은 폭염 특별관측을 실시하였다. 기상관측차량과 휴대용 온도계로 지상 기온을 관측하고,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기상드론으로 상공에서의 기온분포를 측정하였다. 이번 관측은 대전 도심지역과 예산의 농촌지역에서 각각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폭염 현상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폭염 기상정보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2. 8. 22.

2022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중간보고회 및 정보사용자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관광 100선 맞춤형 관광기상융합서비스 개발' 사업의 중간보고회 및 정보사용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 충남도청,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업의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서비스는 관광객이 선정한 충남관광 100선 관광지의 빅데이터와 기상정보를 융합하여 관광객 맞춤형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전체 극값 및 계절관측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 | | |
|----|----------|--------------|----------|
| 대전 | 4위 27.7℃ | 2022. 8. 8. | 8월 극값 4위 |
| 서산 | 1위 27.0℃ | 2022. 8. 8. | 8월 극값 1위 |
| | 5위 26.6℃ | 2022. 8. 7. | 8월 극값 3위 |
| 천안 | 1위 26.8℃ | 2022. 6. 28. | 6월 극값 1위 |
| 보령 | 3위 27.7℃ | 2022. 8. 8. | 8월 극값 2위 |
| 부여 | 1위 27.4℃ | 2022. 8. 8. | 8월 극값 1위 |
| | 2위 27.1℃ | 2022. 6. 28. | 6월 극값 1위 |
| 금산 | 1위 26.7℃ | 2022. 6. 28. | 6월 극값 1위 |
| 홍성 | 1위 27.1℃ | 2022. 8. 8. | 8월 극값 1위 |
| | 2위 26.9℃ | 2022. 8. 9. | 8월 극값 2위 |
| | 3위 26.7℃ | 2022. 6. 28. | 6월 극값 1위 |
| 세종 | 1위 27.3℃ | 2022. 6. 28. | 6월 극값 1위 |
| | 5위 26.1℃ | 2022. 8. 8. | 8월 극값 3위 |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 | | |
|----|------------|--------------|----------|
| 서산 | 3위 209.6mm | 2022. 6. 29. | 6월 극값 1위 |
| 홍성 | 5위 122.5mm | 2022. 6. 29. | 6월 극값 1위 |
| 세종 | 1위 139.3mm | 2022. 8. 10. | 8월 극값 1위 |



**10분 최다 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 | | |
|----|-----------|--------------|----------|
| 서산 | 1위 26.2mm | 2022. 6. 29. | 6월 극값 1위 |
| | 4위 21.7mm | 2022. 8. 13. | 8월 극값 1위 |
| 부여 | 4위 29.8mm | 2022. 8. 14. | 8월 극값 2위 |
| 홍성 | 1위 22.7mm | 2022. 8. 15. | 8월 극값 1위 |
| 세종 | 1위 22.8mm | 2022. 8. 15. | 8월 극값 1위 |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 | | |
|----|------------|--------------|----------|
| 서산 | 1위 105.4mm | 2022. 6. 29. | 6월 극값 1위 |
| 보령 | 4위 72.7mm | 2022. 8. 13. | 8월 극값 3위 |
| 부여 | 2위 110.6mm | 2022. 8. 14. | 8월 극값 1위 |
| 홍성 | 4위 42.5mm | 2022. 8. 1. | 8월 극값 1위 |
| | 5위 40.6mm | 2022. 6. 29. | 6월 극값 1위 |

계절관측

| | | |
|-----|-------------------------------|--------------|
| 매미 | 초성 (작년대비 11일 빠름, 평년대비 20일 빠름) | 2022. 6. 19. |
| 잠자리 | 초견 (작년대비 11일 빠름, 평년대비 5일 늦음) | 2022. 7. 2. |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회원가입(정부통합ID)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하고 **기상청전자민원**을 이용기관으로 체크합니다.

2

로그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원패스ID**(정부통합ID)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4

민원종류선택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 관측증명 중 내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합니다.

5

신청용도선택

농업, 토목/건축, 법률/보험, 학술/연구 등 신청용도를 선택합니다.

6

기상요소선택

종류, 지점, 요소, 기간 선택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내용확인

신청내용(신청용도, 종류, 요소, 지점,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완료

민원보관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증명서(PDF)를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하면 완료!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2. 8.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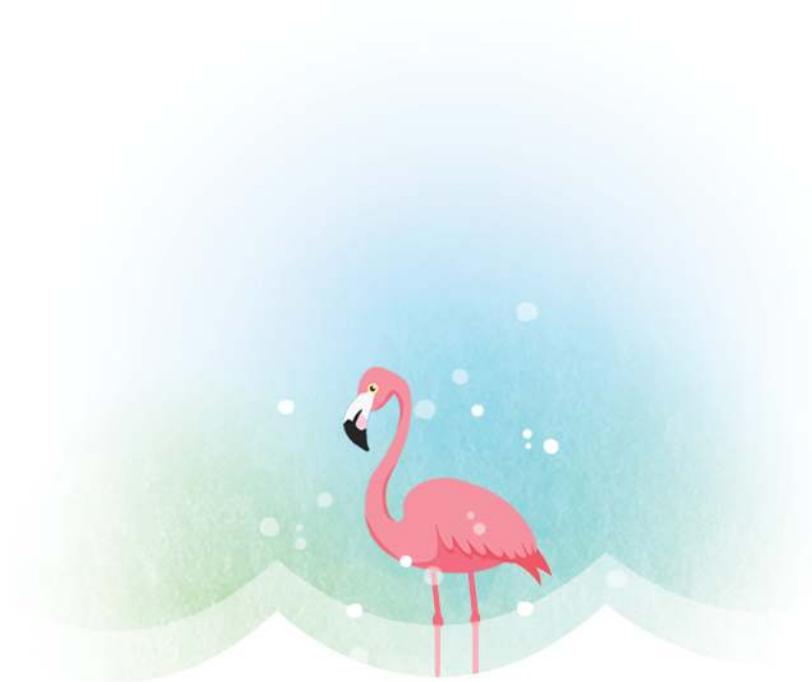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세종(239)

2. AWS(40소)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계룡(636), 계룡산(659),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논산(615), 연무(644), 당진(616), 신평(637) 호도(578), 삽시도(609), 대천항(657), 외연도(669), 양화(635), 대산(606), 서천(614), 춘장대(646) 아산(634), 송악(493), 예산(628), 원효봉(694), 성거(617), 청양(618), 경산(691), 근흥(607), 민리포(658) 북격렬비도(229), 태안(627), 안도(666), 옹도(667), 흥북(608), 흥성죽도(610), 서부(645)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